

일본쇼기연맹의 성립

에도 시대의 가원제(家元制)가 소멸한 후, 메이지(明治)·다이쇼(大正) 시대의 쇼기계는 군웅할거(群雄割拠)의 시대였습니다.

그러나 다이쇼 10 년, 세키네 긴지로(関根金次郎)가 13 세 명인이 이을 무렵부터 기계(棋界) 통일의 움직임이 활발해져, 동 13 년 도쿄쇼기구락부, 쇼기동맹회, 도쿄쇼기연구회의 3 파가 합동하여 도쿄쇼기연맹을 결성했습니다.

쇼와(昭和) 10 년, 세키네 긴지로는 은퇴를 표명하고 긴 전통에 빛나는 일대 명인제에 종지부를 찍고 실력 명인제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. 그 후 한때 기계는 분열했지만, 쇼와 11 년 쇼기타이세이카이(将棋大成会)라는 이름으로 재출발했습니다. 1947(쇼와 22)년, 쇼기타이세이카이는 일본쇼기연맹으로 개칭하고, 1949(쇼와 24)년에는 사단법인으로, 2011(헤이세이平成 23)년에는 공익사단법인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.